

우즈베키스탄

I. 일반개황

면적	44.7만 Km ²	G D P	125억 달러(2005년)
인구	26.3백만 명(2005년)	1 인 당 GDP	475달러(2005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um(숨)
대외정책	CIS 결속, 친러 관계 강화	환율(달러당)	1,180.0(2005년)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인구 2,60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국가로서 면화를 비롯하여 금, 아연, 우라늄 등 각종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국가임.
- 그러나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독재체제 유지로 인해 열악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반정부 세력 확산 가능성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구소연방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해 왔으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대 테러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등 친서방정책으로 선회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 정권의 인권탄압 등 비민주적 통치행위에 대해 미국 등 서방측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경제구조

1차 산업 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 유지

- 세계은행은 2003년 기준으로 1차 산업이 GDP와 고용의 약 1/3을 차지한 것으로 추계할 만큼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1차 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분야별 GDP 비중(2004) : 서비스업 43.7%, 농업 31.1%, 제조업 25.2%
 - 농업 종사인구 : 약 300만 명(2001년 기준)
- 특히 1차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화산업은 동국 최대 수출산업으로 국제면화 시세 변동에 따른 경제의 부침이 심한 취약성을 안고 있음.
 - 면화의 수출비중(2003) : 19.8%
- 2차 산업은 GDP의 20~25%와 고용의 13%(2003년, 세계은행)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성고가 거의 없어 계획경제 방식의 생산체제를 답습하고 있음. 또한, 동국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보호를 받으며 거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
 - 2차 산업의 분야별 비중(2004) : 에너지 24%, 면화가공 및 섬유 19%, 금속 15%

□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양호

- 에너지 자원(특히 천연가스)은 자급자족하며 일부는 인근 CIS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
- 금은 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10위권이며, 동국 수출액의 약 10~20%를 차지하여 면화에 이은 2번째 주요 수출품임. 그밖에 우라늄, 아연 등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동국은 국토의 상당부분이 未탐사지역으로 남아 있어 천연자원 개발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경제정책

□ 개혁거부, 수입대체산업화 고수

- 카리모프 체제 하에서 동국은 경제개혁 성과가 극히 부진하였으며, 국가주도의 수입억제를 위한 수입대체산업화(ISI¹⁾)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입대체산업은 거의 외화가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03년 10월까지 복수환율제를 유지하면서 수출산업이 창출한 외화수입으로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외채 및 자본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음.
- 그러나 ISI정책의 결과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극히 부진한 개혁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한편, 국민 다수를 빈곤상태에 빠뜨렸음.

□ 통화 및 재정정책

- 독립 초기부터 국영기업 및 수입대체산업으로 값싼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였으며, 1996년부터는 실질 정책금리(재할인률)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등 팽창통화정책을 구사하였음.
- 2002년부터 정책금융 억제 등 통화팽창 억제에 나서면서 2003~04년에는 물가가 크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의 제한으로 직접적인 현금유통량 억제에 나서는 등 전근대적인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재정지출 항목에서 공공부문 및 외채이자 누락 등 통계상 오류가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의 경제통제 강화로 재정지출은 적절하게 억제되고 있으며, 대체로 재정수지는 국제 면화시세에 크게 좌우되어 왔음.
- 면화작황이 나빴던 1996년과 1998년에는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1999년 이후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으며 비교적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음.

1)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 외국인투자환경 열악

-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낙후된 제조업, 관료주의 팽배, 잦은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환경 및 투자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발전도 정체되고 있음.

3. 국내경제 동향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f
경제성장률	3.1	1.5	7.4	7.0	6.3
재정수지 / GDP	-0.8	-0.4	-0.4	0.1	-1.0
소비자물가상승률	24.2	13.1	1.7	6.9	8.8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 국제 자원시세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실현

- 동국 2대 수출품목인 금 및 면화의 국제시세 호조에 힘입어 2004~05년에는 7%대의 성장률을 이루었으며, 2006~07년 중에도 러시아로부터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 및 면화의 국제시세 강세, 면화 가공능력 향상 등으로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IMF 등 국제금융기관은 동국의 공식적인 경제성장 통계가 집계방법상의 하자로 상당히 과대계상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최근에는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통계가 상당히 실제상황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나, 2006년 상반기 공식 성장률 발표치는 전년동기 대비 6.6%로 실제보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물가불안 다시 확대

- 1991~02년 중 동국이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결과 두 자리 숫자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IMF는 동국의 공식 인플레이 통계

가 실제수준을 크게 축소시켜 온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2003~04년 중 인플레이가 크게 진정된 것은 사실이나, 역시 공식 인플레이통계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해외유동성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공공요금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맞물려 물가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동국의 2006년 상반기 공식 물가상승률은 3.5%였으나 실제 인플레이는 이 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에는 연평균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대외거래 동향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f
경상수지	97	863	1,112	1,288	880
경상수지 / GDP	0.9	8.5	9.3	10.3	8.1
상품수지	324	835	1,230	1,310	1,340
수출	2,510	3,240	4,290	4,930	5,490
수입	2,186	2,405	3,060	3,460	4,150
외환보유액	850	1,162	1,546	2,000	..
총외채잔액	4,800	5,000	5,000	5,100	..
총외채잔액 / GDP	49.5	49.5	41.7	40.8	..
D S R	25.2	21.3	17.4	17.9	..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 국제수지,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에 좌우

- 동국의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면화, 금의 국제시세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내륙국이란 지리적 입지로 인해 물품수송비, 에너지개발 용역비 등 서비스지급액이 막대하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 통과료 수입의 상쇄효과 등으로 경상수지는 대체로 상품수지에 연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대 수출품목인 면사는 작황부진, 국제시세 하락, 국내 면직물 가공능력 확대 등으로 수출비중이 1990년대의 40%에서 2005년에는 20%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금 수출액은 공표되고 있지 않으나, 수출비중이 1998년 10%에서 2002~05년 중에는 약 13%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강력한 수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로 석유·가스분야 개발,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기계 및 장비수입이 전체수입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최대 교역상대국은 러시아(2005년 교역액의 20% 차지)로 주로 자동차,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기계·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점차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관세당국이 발표하는 교역통계에는 수입억제정책으로 유발된 상당한 규모의 국경 밀거래가 제외되어 있어, 교역통계 역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금년을 고비로 경상수지 흑자 다소 축소될 듯

- 2003년 이후 강력한 수입억제, 금의 국제시세 상승, 에너지 수출 증대, 솜(Som)화 하락에 힘입은 러시아로의 자동차 수출증가 등이 겹치면서 GDP 대비 8% 이상의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면화의 국제시세 강세까지 가세하고 있으나, 에너지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는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자금 유입동향

- CIS 국가 중 열악한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부진한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 2004년 이후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05년말 FDI 누계액(EIU 추정): 15억 달러(GDP의 13%)
 - 주요투자국 : 러시아, 영국(BAT 담배사업), 미국(Newmont사의 금광 투자), 독일 등
- 동국 정부는 1992~2000년 FDI 유치실적을 IMF 추정액의 10배를 넘는 80억 달

러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외채도입액을 FDI에 포함하여 집계했기 때문임.

- 특히 2006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동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무력진압과 관련하여 미국 및 EU측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투자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임.
- 동국은 외환보유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 금시세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증대, 강력한 수입 및 외환통제 등이 맞물려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IMF : 2004년 말 외환보유액을 수입의 7개월분인 21.5억 달러로 추정

□ 최근 외채규모 안정

- 1992년 구소련 채무협약 타결로 동국은 대외채권·채무가 없는 상태로 출발했으나, 2003년 말에는 GDP의 50% 수준까지 채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외채구조는 중장기채무가 85%이고 중장기채무의 90% 이상이 정부 보증 공적채무로써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편이며, 최근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 불능이나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카리모프 독재체제 유지

- 구소련 붕괴 이전 권력을 장악한 카리모프(I. Karimov)는 정치 및 경제자유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야당 등 반대파 존립근거 박탈, 언론·방송 장악, 외국 NGO단체의 추방 등을 통해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음.
- 특히 1995년 대통령 선거를 취소한 국민투표로,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

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국민투표, 2004년 12월 양원제를 도입하는 국민투표 등을 비롯하여 1994년, 1999년, 2004년 총선 등 각종 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비난에 직면해 왔음.

- 2005년 5월에 동부지역의 안디잔에서 지역유지에 대한 체포로 촉발된 평화적 시위가 교도소 점거 및 반정부 인사 석방 등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자, 2003년부터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에서 연이어 발생한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데 긴장하고 있던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보안군을 지휘하며 강경 무력진압에 나서 유혈사태로 확대됨.
- 유혈사태는 정부의 강경 무력진압 및 철저한 언론통제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으며,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통제와 결집력을 갖춘 야당의 부재로 시민혁명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나 EU 등 서방측과는 인권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2. 카리모프 체제의 취약성 커질 듯

- 카리모프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실정 및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안디잔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비록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와 반정부 세력의 결집력 부족으로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슬람 과격세력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지기반을 넓혀갈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12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 카리모프가 다시 연임에 나설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등 권력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집권세력 내부에는 사마르칸트파와 타시켄트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력다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카리모프 체제는 안팎의 반발로 인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방과는 달리 카리모프 체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러·중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카리모프 정권의 보호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대서방 관계는 악화, 친러·친중 정책 가속화

- 동국의 대외관계는 자국의 안보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와의 양자간 안보관계를 중시했음.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장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었음.
- 또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중국과도 관계가 밀접해 지고 있음.
- 1990년대 정치·경제의 개혁문제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미국과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지원을 위해 자국 영토 내 공군기지를 제공하면서 관계개선에 나섰으나, 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소극적 지원,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 증대 등으로 다시 관계가 급격하게 소원해졌음.
- 안디잔 사태에 대한 EU 및 UN의 진상조사 요구 거부 및 영내 미군 공군기지 철수 등으로 미국 및 서방측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미국 및 EU도 경제원조 중단 및 안디잔 관련 고위 공무원의 해외자산 동결 등 일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전략적 중심지인 중앙아시아와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에 밀리던 러시아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디잔 사태에 대한 카리모프 정권의 입장을 옹호함. 이에 따라 우즈베크 정부와 러시아와의 정치·경제·군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
- 중국도 상하이협력기구 일원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 목적에서 우즈베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주요 기관별 신용등급

-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바 없음.
- 주요평가기관 평가순위
 - OECD : 7등급 ('05. 1) → 7등급 ('06. 1)
 - Euromoney : 135/185 ('05. 3) → 137/185 ('06. 3)
 - II : 127/173 ('05. 3) → 127/173 ('06. 3)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공공부문 장기거래 인수 중지
- Atradius :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ECGD : 단기인수 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 태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적채무 상환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원면, 금 등 수출을 통한 경화수입으로 공적외채 중심으로 상환 또는 rollover하고 있으며, 리스케줄링 사례는 없음.

4.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불편한 관계 지속

- 1995년 마지못해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나 1996년 대기성차관 계약 체결에 실패했으며, 1997년 이후 IMF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에 실패하였고 2001년에는 IMF가 대표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하였음.

-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IMF와의 협의가 재개되었으나, 완전한 대기성차관 계약보다는 느슨한 SMP²⁾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단일환율제 실시 등의 개혁목표 달성에 실패했음.
- 2004년 말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했으나, IMF는 여전히 무역 및 외환통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물가통계의 문제점 등 동국 정부의 공식통계의 신뢰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2005년 EBRD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였고, 2006년 세계은행도 동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였음.

V. 종합의견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보유국으로서 천연가스, 금을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치민주화와 경제개혁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는 카리모프 독재체제가 장기간 유지된 결과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주변국의 시민혁명 여파와 안디잔 유혈사태, 인권탄압에 대한 서방세계와의 갈등, 2007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제반 정치 및 사회여건은 상당한 불안 가능성을 안고 있음.
- 최근 국제자원시세 강세, 러·중의 투자증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동국의 국가위험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고 재 호】

2) staff-monitored programme.